

이라크 국내정세 현황과 전망



홍 성 민
중동경제연구소장

선공격, 후해결의 과오

미국은 2003년 11월 18일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근거지를 초토화하기 위해 이라크 중북부 지역에서 지난 5월 1일 종전 선언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을 단행했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미국의 우방국들이 파병 문제를 놓고 골치를 썩이고 있는 가운데,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육성 테이프가 공개되는가 하면 미국의 조기 철수론이 대두되고 또 부시 미대통령의 절대불가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3월말 공격이 개시되고 5월 1일 주요 전투를 종결한 미국의 승전이 무의미함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시간에 쫓기고 있던 미국이 일단 선전포고를 하고 이라크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도, 즉 <선공격, 후해결>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라크 사태의 오늘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착오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당시 전세계적인 반전단체들의 저항과 UN의 미온적인 자세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의 전쟁 반대 움직임에 직면한 것은 물론 국내의 반전 움직임과 대량살상무기(WMD)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사막의 폭풍이라는 전략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테러와의 전쟁> 연결선상에서 전세계에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후, 과연 미국이 이라크에 '새로운 민주국가' 혹은 '친미적인 이라크 정권'을 어떻게 수립하느냐하는 문제는 전쟁이전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알-카에다를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대대적인 공습으로 시작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후세인 색출-제거'라는 목표로 시작한 스마트 전쟁은 일단 사막의 폭풍을 비롯한 미국의 작전수행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라크 전쟁은 애초부터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단기전 이라기보다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전쟁이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사태는 쉽게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후, 과연 미국이 이라크에 '새로운 민주국가' 혹은 '친미적인 이라크 정권'을 어떻게 수립하느냐하는 문제는 전쟁이전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만일 미국이 공격하고, 그 공격이 성공하여 사담 후세인을 무리없이 제거한다 손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라크를 누구에게 맡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최대의 난제가운데 하나였다. 사담 후세인이 없는 이라크는 또다시 민족 분쟁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북부의 쿠르드족은 연방정부 구성하자고 나올 것이며, 60%가 넘는 쉬아파를 현재 30%정도의 순니파가 정권을 지배하고 있기에 주도권 다툼을 위한 종파간 분쟁도 격화될 것이다. 더 더욱 20년이상 철권정치를 해왔기에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는 반후세인 지도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무튼 후세인 없는 이라크가 보다 복잡한 내정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사실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알리 바바와 40인의 도둑

영국의 보건 전문 시민단체인 메드액트(Medact)는 2003년 3월 발발한 이라크 전쟁으로 11월 11일 현재 모두 2만1천~5만5천 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의 대부분은 이라크군 병사 및 민간인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21세기 처음으로 벌인

이번 전쟁은 이렇듯 처참한 참상을 안겨주었으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이미 피해를진 이라크인들의 삶의 의지마저 꺾어놓았다.

이라크에는 성경속의 '에덴의 동산'이라 불리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만나는 알-꾸르나(Al-Qurna)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그곳에는 '아담 나무(Adam tree)'라 불리는 수명이 꽤 오래된 나무가 아직까지 자라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브라함의 출생지이며 길가메쉬 서사시의 무대였고, 많은 종교들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이라크는 분명 인류 문명의 시원(始原)임이 분명한데 '아담과 이브'가 평화롭게 살았다는 바로 그 땅에서 인간이 스스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플리처상을 세차레나 받은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조지 W.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라크 경영에 대한 조언 가운데, "이라크가 아랍 국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라크는 2류 미국인이 아닌 일류 아랍인이 되고 싶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미국은 힘과 경제력으로 이라크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애초에 이라크전이 시작될 때 이라크인들이 손쉽게 '환영(welcome)'하고 나오리라는 기대는 쉽게 무너졌고 오히려 미국의 바그다드 점령이후 반미감정은 더 커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라크의 자존심은 전쟁중에 우리에게 낯익은 얼굴로 다가온 알-사하프 공보장관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신기자들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송을 했으며 방송실을 나와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베레모를 벗고 옷깃으로 붉은 장군 금장(襟章)을 가린 뒤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다"고 의연한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익살맞은 알리(Comical Ali)'로 알려진 사

하프 장관은 후세인의 동상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전장의 포성이 스튜디오에 들리는 순간까지 바보스러울 정도로 의연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방송을 마치고는 스튜디오를 빠져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영웅 만들기과 용감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는 이라크인들의 눈에는 단지 코믹스럽게 보일 뿐이다. 물론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린치 일병 구하기’는 조작된 영웅 만들기라고 하고 있다. 나시리아의 병원에서 린치 일병을 돌봤던 이라크 의사 하리스 아-후소나는 “검사 결과 린치 일병은 팔과 넓적다리가 골절되고, 발목 관절이 탈구돼 있었다”며, 총상이나 자상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의사인 안마르 우다이는 미군이 당시 병원에 이라크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고 고 고 (Go Go Go) 를 외치며 빈총을 가지고 폭발음을 내며 요란한 구출작전을 펼쳤던 미군들의 행동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를 연상케 했다”고 꼬집었다. 또 하리스는 미군이 병원을 급습하기 이틀전에 앰블런스를 이용해 린치 일병을 미군에 인계하기로 약속돼 있었으나 막상 약속 당일이 되자 미군은 앰블런스에 총을 쏘며 병원으로 되돌려보내 그날 밤의 쇼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이라크인들의 설득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라크인들은 지금 보다는 과거가 더 좋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노르웨이 다그블라데트지의 라인 프란손 기사는 바그다드 동물원 취재를 위해 자우라 공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발가벗은 이라크 사람 4명이 미군 4명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프란손 기사는 “처음에는 그들이 목욕탕에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건물안으로 들어가더니 1분 후 쫓 미군이 그들을 대로로 쫓아냈다. 발가벗겨진 이라크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부근 차

에서 기다리던 동료들에게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미군들은 그들을 쫓아낸 뒤 “알리 바바, 알리 바바”라고 소리쳤다. 가까스로 바지를 구해 입은 지아드라는 한 청년은 자신과 친구들이 실종된 동생을 찾으러 공원에 갔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미군 책임자인 에릭 캐나데이 소위는 이라크 청년들이 공원 안에 있는 무기들을 훔치려 해 문제가 빚어졌다고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라 그들을 발가벗기고 가슴에 아랍어로 ‘알리 바바’라고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아드씨는 “미군들에게 목욕을 당한데 분개해 수류탄을 찾아 미군 4명과 다른 모든 미군들에게 던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프란손 기사는 전했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임을 자랑하는 이라크인들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미국의 반감을 더 자아내게 할 것이다. 이라크인들은 오히려 미국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미 데모시 찰라비를 ‘도둑’에 비유하며 “도둑을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예멘의 동산에서 새로운 이라크건설을 다짐하고 있었다.

게릴라전으로 변모하는 이라크 저항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서 미군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게릴라전은 전쟁 이전에 이미 이라크 정보국에 의해 대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성의 한 관리는 새로운 증거를 감안해 볼 때 “이라크는 이미 전쟁전에 중앙에서 게릴라전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이와 같은 견해가 전직 이라크 관리들에 대한 신문과 이라크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라크의 저항이 얼마나 강력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지에 대해 과소평가 했음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지난 3월과 4월 미군의

전쟁 승리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라크의 치안을 안정시키고 민주정부를 세운 뒤 이라크에서 빠져 철수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이 저항세력들의 끈질긴 공격과 친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의 무능 등으로 미국의 대 이라크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전광석화와 같은 진격속도에 압도돼 이라크의 게릴라 전 계획은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후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재결집해 효과적인 세포조직들을 결성하고 박격포나 원격조정 폭탄 등을 이용해 점점 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리들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 승리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라크의 치안을 안정시키고 민주정부를 세운 뒤 이라크에서 빠져 철수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이 저항세력들의 끈질긴 공격과 친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의 무능 등으로 미국의 대 이라크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군을 노린 공격이 9월 이후 크게 늘었으며 최근에는 하루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영국군과 유엔 등 국제기관, 이라크 경찰 등에 대한 공격은 5월에 하루 평균 5.1건, 6월에는 9건, 7월에는 9.8건, 8월에는 7.7건이었으나 9월에는 하루 평균 23건으로 늘었다고 이 신문은 밝히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요 전투중결을 선언한 5월에만 해도 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총격을 가하는 단순한 공격이 대부분이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박격포로 여러 차례 공격을 거듭하거나 사제폭탄으로 매복 공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엔 보고서도 최근에는 미군 등을 추격하면서 로켓탄 공격을 퍼붓거나 대공화기로 헬리콥터를 공격하는 등 ‘세련된’ 공격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이 작성한 ‘보안정보’는 9월 이후부터는 공격주체였던 옛 후세인 정권계 추종자 외에 다른 집단에 의한 공격도 있었다고 한다.

이라크 저항의 대표적인 예는 8월 19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바그다드 소재 유엔본부 폭탄테러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유엔본부가 테러대상으로 오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유엔을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하수인으로

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 임시 기구가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GCI)를 지난 8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500호를 통해 승인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엔이 미·영의 이라크 점령을 지지한 것으로 이라크인들의 눈에 비쳤을 것이다. 또한 유엔 본부에 대한 테러공격은 이라크내 유엔의 확대, 특히 평화유지군 파견을 중지시키는 목적을 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아파로 보이는 한 이라크 저항단체가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동참하는 외국 군대와 이들 국가에 대한 테러를 경고하고 있다. ‘이맘 알리 빈 아비-탈레브의 지하드 여단’이라는 이라크 저항단체라고 밝힌 5명의 남성은 기관총과 휴대용 로켓발사기(RPG), 대(對)전차 로켓으로 보이는 무기 등으로 무장하고 바그다드 서부 팔루자에서 입수, 공개한 CD에 등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이 선정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 전원과 미군 주도의 점령 당국에 협조하는 이라크인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정치인들과 부족 지도자들을 공격 목표로 거명했다. 이들은 “아랍권 여부에 상관없이 이라크에 파병되는 모든 외국군을 점령군으로 인식, 이들과 단호히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조만간 이들 국가에 대한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세기 이슬람 예언자 무하마드의 사촌이자 가장 추앙받는 이슬람 시아파 성인중한 명인 알리 빈 아비-탈레브의 이름을 본뜬 이 단체는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와 카르발라를 미국에 대한 전장으로 거론했다.

미군의 저항세력 소탕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군은 11월 16일 저항세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이라크 중북부를 중심으로 ‘담쟁이덩굴 회오리바람(Ivy cyclone)-II’ 작전에 전격 돌입했다. 제4병보병사단이 주축이 된 부대가 이끄는 이번 작전은 북부 모술에서 미군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충돌해 미군 병사 22명이 사상하는 전후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후 시작됐다. 그러나 미군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추종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는 미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하루 동안 폭발물 매설공격을 포함해 12차례나 이뤄졌다.

한편 행방이 묘연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녹음테이프가 또다시 등장하였다. 녹음속의 후세인은 점령군의 즉각 철수와 성전을 촉구하고 나서 저항세력의 공격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미군과 저항세력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세인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담은 15분 분량의 녹음테이프가 11월 16일 아랍어 위성채널인 알-아라비야 TV를 통해 방송됐다. 개전직후 사망설이 나돌며,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담 후세인의 생존 가능성은 여전히 이라크 사태를 혼미속으로 몰고가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종적을 감춘 후세인 추정 목소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다. 전설속의 후세인은 계속 성전(jihad)을 외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고 역설하면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점령군의 '사악한 의도'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떠나는 것 이외의 선택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연합군에 맞서 보다 강력한 성전을 펼칠 것을 이라크 국민들에 촉구했다. 그는 또한 특히 "외국군이 만든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은 외국군을 공격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합군에 협력하는 이라크인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했다.

반미감정 악화와 폭탄테러 급증

개전직후 미군을 환영하리라던 미국의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이라크에서 반미감정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친미적인 이라크 주재 외교관 및 대사관 직원에 대한 테러 협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 지고 있다.

10월 초 전쟁중 사망한 미군의 숫자를 넘기면서 100명 이상의 미군이 희생된 가운데, 지난 10월 이라크 주재 스페인 대사관 무관이자 정보요원인 고메스 해군 중사가 사담 후세인 전(前) 대통령의 정보요원들에 의해 살해된 것을 비롯하여, 바그다드 주재 터키대사관 부근에서 10월 14일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1명이 숨지고 대사관 직원 등 10여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 폴 월포워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군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목고 있던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의 18층짜리 알-라시드 호텔도 10월 26일 로켓공격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라크주둔 이탈리아 경찰관서에서도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하는 테러가 발생하였고, 10월 27일에는 바그다드에서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국도 "지난 8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바그다드 사무소가 총격을 받았고, 같은 달 대우 바그다드 사무소 파견 직원이 바그다드를 떠나라는 협박서한을 받았다"고 한다.

아무튼 이라크인들은 미군에 맞서 '항전의 날'을 선언하고 대규모 공격을 예고한 11월 2일 오전 이슬람 순니파 근거지 팔루자 교외 하시(Hasi)에서 미군 소속 CH-47 치누크 수송헬기가 미사일에 피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날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했다.

필자가 전쟁직전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사담 후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증오한다."라고 항전의 결의를 다지던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이 다시 뇌리를 스친다. 경제가 어떻게든 미국은 싫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인들은 우문현답(愚問賢答)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전투병을 보내는 게 아니니 이해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군인은 군인이다. 전투병이건 비전투병이건 이라크인들의 눈에는 적군(敵軍)일 뿐이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한다. 일단 파병을 결정한 이상 우리도 이라크의 테러에 대비해야한다.

는 논리이다. 당시 이라크인들은 미국만 아니면 어느 나라도 좋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곳에서 반미의 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라크는 수많은 족장들이 이끄는 아주 복잡한 모자이크 사회이다. 개전직후 사담 후세인은 마치 철저한 준비라도 한 듯 텔레비전에 나와 “지금부터 각 부족장들은 알아서 전투에 임하라”고 포고한 뒤 막후로 사라졌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골격은 이라크를 지켜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사담 후세인을 옹호하며 이라크 정권이 철권정치로 이라크를 통치하던 시절 각 족장들은 이를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들 지렛대가 이제 지하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반미감정을 이용한 외국인의 퇴출이며, 그 결과가 현재의 테러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를 방문한 월포워즈 미국무성 부장관도 이토록 저항이 거셀 줄 몰랐다는 외신보도는 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임에 틀림없다.

새로운 테러의 등장

이라크인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그들에게는 문명국가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본보 3·4월호에 기고한 글 가운데,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을 자부하는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어온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바빌론 문명과 세계 최초의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을 가졌고 세계 제2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가 ‘문명의 충돌’ 한가운데 서 있다. 이라크는 분명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풍부한 자원’ 때문에 전 세계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인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라크는 문명의 한 가운데 있었던 문명국가라는 사실을!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흐르더라도

먼 미래에 이라크는 항상 언제나 이라크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라크인들에게는 일종의 문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에, 비록 현재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라크인들은 긴 역사(歷史) 가운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가볍게 무시해버린다. 다시 말하면 긴 역사중에 일시적인 불행은 잠시 겪는다하더라도 “이라크는 이라크인들의 것”이라는 명제(命題)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 ‘테러’라는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지도 어언 2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이라크식 테러를 변모시키며, 전세계는 그들의 경고에 당황하고 있다. 다름 아닌 이라크 파병문제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인들은 우문현답(愚問賢答)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전투병을 보내는 게 아니니 이해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군인은 군인이다. 전투병이건 비전투병이건 이라크인들의 눈에는 적군(敵軍)일 뿐이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한다. 일단 파병을 결정한 이상 우리도 이라크의 테러에 대비해야한다. 이라크인들은 분명 ‘당근과 채찍’이 통하지 않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전 이후 지켜보아 왔다.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라크와는 적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요 슬픔이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이 왜 저토록 철천지원수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도 이제는 잊을 건 잊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이라크 현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테러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슬픈 관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단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하루빨리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고 평화롭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한국과 이라크 관계는 과거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